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의미

히11:1-2, 12:1-2

오늘은 부활 주일이다. 오늘은 < >, 지난 주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믿음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첫째,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

둘째, 우리는 내적으로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슨 평가를 내리실 것인가?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을 세 개의 단어로 준다.

실체(substance), 증거(evidence), 좋은 평판(good report).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한 이 세 개의 개념을 10장부터 12장까지 정밀하게 전개한다.

10장의 히브리 성도들,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마침내 12장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개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님의 겹세마네,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의미

히브리서 11:1 — 실체와 증거

1. 믿음의 정의: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믿음 구약 2회, 신약 245, 총 247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엡2:8-9,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대개 우리는 믿음을 구원에 필요한 요소(수단),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은 현재와 미래의 삶의 모든 것을 진 열쇠이다.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한다. “구원받으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믿음은 필요하지 않은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등은 구체적으로 구원 이후의 믿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 준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보여 준다.

히11:1, 이 한 절이 오늘 설교 전체의 출발점이다. 여기 등장하는 두 단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2. 실체 (Substance)

실체(substance)란 ‘밑에서 무언가를 떠받치고 있는 기반’, ‘겉으로 보이는 것 뒤에 있는 실제 기반’이
란 뜻이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붙들게
하는 기반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 단순한 생각도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미 존재하는 실제’로 붙드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선물 약속, 손자는 이미 받은 것으로(실체로) 알고 기뻐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사람이 멀리 있는 땅을 샀다. 아직 그 땅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는 이미 그 땅의 주인이다. 왜? 그 소유를 보증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종이가
아니라 그 종이가 보증하는 실제 소유 상태다. 이것이 바로 실체이다.

그러므로 히11:1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다의 의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아직
내 눈앞에 실현되지 않았지만 믿음은 그것들을 이미 실체로 붙드는 것이다.

미래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시, 천국(히 11:10), 부활과 영원한 생명
(히 11:35),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벧후1:4), 죄를 모르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들이 아직 내 손에 없지만 우리는 믿음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소유권 증거를 지금
손에 실체로 쥘 채 살고 있다.

3. 증거 (Evidence)

증거라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어떤 사실을 드러내어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증거

믿음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천국, 세상의 창조(히11:3)

이것은 역설처럼 들린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내적으로 확신한다.

이 확증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자리 잡는다.

그래서 그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의 삶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난다.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그의 삶 자체가, 그가 믿는 세계가 실제라는 것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4. 정리하면 이렇다.

실체 — 믿음의 사람이 현재 손에 쥔 것, 즉 우리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들의 소유권 증서
증거 — 그 실체가 진짜임을 확증하는 내적 증거, 그리고 그 확신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히브리서 11:2 — 좋은 평판 (Good Report)

바로 다음 절에서 세 번째 개념이 등장한다.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히11:2)

1절의 증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 안에서 작동하는 내적 확증, 그 결과로 믿음의 삶이 밖으로 드러남
2절의 ‘좋은 평판’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좋은 평판(good report)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내리신 공식 평가다.

report card,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성적표를 건네듯,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삶에 “옳다, 잘하였다”고 도장을 찍으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다. 세상의 역사책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예(히11:8-16)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었고(실체), 그것이 진짜임을 내적으로 확신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며(증거), 결국 하나님께 좋은 평판으로 인정을 받았다.

1. 실체, 11:8, 아직 그 땅을 보지 못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그는 떠난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미 자기 것처럼 붙들었기 때문이다.

11:9, 그는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것을 소유하지도 못했고 집도 짓지 못하고 장막에서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을 이미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붙들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실체이다.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들을 지금 이미 “내 것”으로 붙드는 것

2. 증거, 11:10, 아브라함은 단순히 가나안 땅aks을 본 것이 아니다. 그는 더 깊은 것을 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도시, 그는 이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내적으로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장막에 살아도 흔들리지 않았다. 현실이 불안정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내부에는 이미 “이것이 진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13절이 나온다. ‘확신하며 끌어안았다’, 보지 못했지만 이미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임(증거)

3. 좋은 평판, 11:16, 하나님께서 “나는 이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이진 단순한 칭찬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개적인 인정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다.

아브라함은 땅도 없었다. 집도 없었다. 도시도 세우지 못했다. 겉으로 보면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좋은 평판, 좋은 성적표, 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종 판결의 본질이다.

믿음이란?

믿음이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실제로 붙들고, 그것들을 내 안에서 확증하면서 살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좋은 성적표로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믿음은 단지 “구원에 이르기 위한 통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구원 이후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실제적인 원리다. 히브리서 11장이 보여 주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히브리서 11장만의 믿음이 아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믿음이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다. 노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도 동일하다. 믿음은 언제나 동일한 본질을 가진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1. 우리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존재하는 실체로 붙드는 것이며(실체)
2. 그것들이 진짜임을 내 안에서 확신하는 것이고(증거)
3.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좋은 평판)

그래서 믿음은 시대마다 바뀌는 개념이 아니다.

구약의 믿음, 신약의 믿음은 본질 면에서 동일하다.

대상과 계시는 점진적으로 드러나지만 믿음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 것들을 붙들었듯이 오늘 신약 성도들도 보지 못한 것들을 붙든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계시를 받았고 더 분명한 대상(예수 그리스도)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식은 동일하다.

1. 보지 못했지만 붙든다, 2. 보지 못했지만 확신한다, 3.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단순한 “위인전”이 아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것이 모든 시대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는 장이다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을 붙들고 내적으로 확신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삶의 태도 전체를 말한다.

히브리서 10:32-35 — 히브리 성도들의 실체와 확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목록을 펼치기 전에, 먼저 10장에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이들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겪음 **히10:32-33**

32: 회상하라. 33: 무슨 일을 겪었는가?

34: 왜? 이는 너희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라.

여기서 바로 실체라는 그 단어가 다시 등장한다. 그것도 ‘더 좋고 영구한 실체’

히브리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겼다. 조롱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는 자들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것들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였다(34절).

왜? 이미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앞으로 너희가 영구한 실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너희에게 이미 그 영구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말한다.

믿음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다. 지금 이미 손에 쥔 실체를 붙들고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35절의 권면이 나온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여기서 확신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다. 이 단어는 본래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실체를 손에 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한 자세다.

실체를 가진 자는 확신(증거)을 버리지 않는다. 실체와 증거는 함께 간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과 보상을 받는다. 히11:6

히브리서 11:35-40 — 고난 받은 성도들과 히브리서 10장 성도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는 35절에서 갑자기 반전된다.

승리의 이야기들이 멈추고 고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히11:35-38**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실패다. 패배다. 비참한 삶의 끝이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한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38)

왜?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실체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10장의 히브리 성도들의 이야기와 얼마나 정확히 겹치는지 보라.

히브리서 10장 성도들은 비방과 고난으로 구경거리가 되었다. (10:33)

11장의 성도들도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였다. (11:36)

히브리서 10장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겼다. (10:34)

11장의 성도들도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받았다. (11:37)

히브리서 10장 성도들은 결박당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10:34)

11장의 성도들도 결박과 투옥을 당하였다. (11:36)

그러나 공통분모는 더 깊은 곳에 있다. 이 두 그룹 모두 실체를 붙들고 살았다.

10장 성도들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알았기에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34).

11장의 고난 받은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11:35)이라는 실체를 붙들었기 때문에 고통과 핍박 고난에서 구출받는 것을 거절하면서 고문까지도 감내하였다.

더 조은 부활: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삶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성적표(좋은 평판)는 무엇인가?

11:39,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좋은 성적표를 주셨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던 믿음의 끝마무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신앙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옆에 서서 통치하는 것

12장이 바로 그 완성을 이야기한다.

히브리서 12:1-2 — 10장과 11장의 피날레, 그 정점에 예수님이 계신다

히브리서의 구조를 보라. 10장, 11장, 12장은 분리된 단원이 아니다. 하나의 장대한 흐름이다.

드디어 12장 1절이 시작된다. 히 12:1

12장 1절의 ‘증인들의 무리’는 11장에서 하나님의 좋은 평판을 받은 바로 그 사람들이다.

10장의 히브리 성도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름 없는 고난 받은 성도들이 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의 피날레가 바로 2절에 등장한다.

믿음의 경주길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히 12:2)

10-11장 전체가 이 한 절을 향해 달려온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히브리 성도들의 고난도, 아벨의 희생 제사도, 노아의 방주도, 아브라함의 순종도, 모세의 선택도, 이름 없는 순교자들도 다 이 한 가지 질문을 향해 달려온다.

“믿음의 실체와 증거와 좋은 평판의 완전한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근원은?

그 대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이시다.

여기서 창시자라는 말은 단순히 ‘시작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단어는 선두에서 길을 여는 개척자, 앞서 달려가는 선두주자를 뜻한다. 군대에서 선봉에 서서 길을 여는 장수의 이미지다. 경주길 완성자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 완주한 자, 믿음을 완전하게 이룬 분을 뜻한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사신 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실체, 증거, 좋은 평판)이 무엇인지 몸으로 완전히 보여 주신 분이다.

히11장의 모든 인물들은 믿음의 길을 앞서 달린 선진들이다.

그들이 붙든 실체의 근원은 누구인가? 예수님이시다. 그들 안에서 입증된 믿음의 내용도 예수님이시다.

그들이 받은 좋은 평판의 근거 역시 예수님이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증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안에서 실체와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한 가지 신학적 전제를 먼저 밝혀야 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히브리서 5:7-8은 이렇게 말한다. 그분은 아들이셨으나 고난들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이것이 핵심이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완전한 인성 안에서 실제로 고난을 통해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히 11:1의 실체와 증거를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완전히 정당하다.

1. 겻세마네 — 거기서 실체를 붙드셨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신다.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 26:42)

이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고통이다. 배신이다. 십자가다. 땀이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지는 극한의 고뇌다(눅22:44). 인성을 가지신 그분이 몸으로 느끼는 실제적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분이 붙드신 것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것이 그분의 믿음의 실체였다.

그분은 보이는 것 — 겻세마네의 고통과 고뇌 — 을 따르지 않으셨다.

보이지 않는 것 —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것 — 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

2. 십자가 — 보이지 않는 기쁨을 붙든 증거

히브리서 12:2가 명시적으로 말한다.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떨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십자가 위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고통이다. 수치다. 죽음이다. 조롱이다. 어둠이다.

그러나 거기서 그분이 붙드신 것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었다.

이 기쁨은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십자가의 극한 고통 속에서 눈으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실체로 붙드셨다.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눈에 보이는 고통과 수치와 죽음에 굴복하지 않으셨을 때, 그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

3. 매장 — 가장 깊은 침묵 속의 실체

무덤 속 사흘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한 패배요 완전한 침묵이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믿음의 실체는 흔들리지 않았다. 시편 16편이 미리 선언하였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시 16:10)

이 약속이 실체였다. 무덤은 이 실체를 반박하지 못하였다.

부활 — 하나님의 궁극적 승인

셋째 날 아침,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한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붙드셨던 실체가 현실로 드러난 사건이다.

겻세마네에서 붙드셨던 아버지의 뜻, 십자가에서 바라보셨던 기쁨, 무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 — 그 모든 실체가 부활의 아침에 현실로 드러났다.

그날은 소유권 증서가 증명된 날이다.

둘째,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신 최고의 공식 승인이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라. “그분께서는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롬 1:4)

밝히 드러나셨다는 이것은 공식 선언, 공식 승인의 언어다.

그렇다면 부활은 히브리서 11장 2절의 좋은 평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수님의 부활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선언하신다.

“내 아들의 믿음의 삶은 완전하였다.” — 이것이 예수님 개인에 대한 좋은 평판이다.

“내 아들의 속죄는 완성되었다. 내 아들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로마서 4:25,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지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승천 — 믿음의 완성

그리고 히브리서 12:2는 이렇게 끝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히셨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다.

겻세마네에서 붙드셨던 실체, 십자가를 견디게 한 기쁨, 무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

—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승천으로 완전하게 성취됨.

그리고 이 완성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실체이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

오늘은 부활 주일,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히 12:2)

그분의 겻세마네를 보라 — 실체를 붙드신 그 기도를 보라. (아버지의 뜻)

그분의 십자가를 보라 — 보이지 않는 기쁨을 증거로 가지고 사신 그 삶을 보라.

그분의 빈 무덤을 보라 — 하나님께서 최고의 승인을 내리신 그 아침을 보라.

그분이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계심을 보라 — 믿음이 완성된 그 자리를 보라.

그분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다.

그분이 선두에서 이 길을 여시고 완성하셨다.

지금 그분이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리고 그 부활과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앉는다는 실체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이 실체를 손에서 놓지 말자. 부활, 하나님의 본성, 영원히 사는 것

우리는 이 내적 확신의 증거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평판(성적표)을 바라보라.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